

전자책 · 오디오북 제작 지원

출판진흥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등 대응 방안 발표
세종도서 총 950종 선정 · 보급 상반기에 결정... 통합 운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달 한 달 간 책 무료 제공, 주요 사업 지원금 조기 집행 등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출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진흥원은 제작·출간 일정 지연,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출판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돼 있는 국민 독서 분위기를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책은 크게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상반기 통합 운영 ▲종이책·전자책 제작 및 지역서점 문화 활동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등 사업 지원금 조기 집행 세 가지로 분류된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업계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주요 사업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세종도서 사업은 1968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공공사업이다.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해당 출판사에 특정 수량을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매년 교양부문 상·하반기 연 2회 총 550종, 학술부문 하반기 1회 총 400종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에 950종을 모두 선정, 보급하기로 했다.

출판단체, 독서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협의도 거쳤다.

사업 상반기 전면 시행과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에 한해 출판사의 신청종수 제한을 완화하고 최대 선정 종수 제한도 축소할 계획이다.

종이책 및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도 지원금을 조기 집행한다. 각 출판사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선정 및 협약 체결 일정을 단축해 보다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은 지원금 조기 집행은 물론 계약 선급금도 상향 조정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분야에 조기 집행된 지원금만 6억3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서점 문화 활동 지원' 및 '도매비 책방' 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협의 중인 단계라 명확한 조기 집행 예산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매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출판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입주 출판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절반만 받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수영 출판진흥원장은 "정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출판업계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문체부, 올해 '청춘 마이크' 410팀 지원

대중음악 등 무대 설 기회 제공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도 확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돼



올해 청년문화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하게 공연을 펼치는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410개 팀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의 기획사업인 청춘마이크는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제한 없이 만 19~34세의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의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7개 팀, 청년문화예술가 32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4622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원의 예산을 늘린 총 67억원의 편성해 134개 팀이 더 늘어난 총 410개 팀을 지원한다. 각 팀은 연 5회,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공연비는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 공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이달에 추진

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도 올해 확대된다.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난해 5500명이 총 166억원의 지원을 받아 청년예술인의 혜택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1만2000명 총 362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 또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재산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예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인 상반기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들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지원 일정도 앞당겨 오는 6월부터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

태권도 교실이 청소년들을 찾아갑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제반사항 지원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2개소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하나센터(새터민 청소년) 청소년원, 꿈드림, 꿈키움센터 등 청소년 관련 단체를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에서는 태권도 기본기술과 품새, 격파 등을 주 1회 2시간 동안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대상 단체를 먼저 선정 후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확인하는 등 태권도 교실 운영 시기를 협의 하에 정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운영을 위한 태권도 사범 파견, 용품(도복, 교육기자재) 등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태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교

육부 임준규 주임(063-320-0570) 또는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tpf.or.kr/tpf/contents/tpf0501.do?chM=view&id=2461>)에서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도, 월평균 14일에서 20일 가량 확대 추가 배치 통한 보전도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 중단으로 활동비를 받지 못하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설사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선지급을 원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해설활동비를 선지급한다.

해설활동비를 선지급 받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 활동 일수도 월평균 14일에서 20일 정도 확대하여 추가 배치를 통한 활동비 보전계획도 밝혔다.

도내 문화관광해설사(258명)는 주요관광지 70개소에서 해설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설중단으로 활동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및 추가 활동 배치해 활동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선지급 가능 방침을 얻어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 중단 기간 동안에 예정된 통상적 범위의 해설 활동에 대하여 활동 재개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활동 배치를 통한 활동비 보전이 가능하다.(해설사 활동일수: 월평균 14일 → 20일 정도(미 활동일수 반영) 확대

운영) 또한 해설활동 중단 장기화를 고려하여 생활 지원에 관한 해설활동비 선지급이 가능하여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 확정일자 등 이행을 통해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북을 찾는 여행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 70개 주요관광지에서 해설 활동을 통해 여행객에게 관광지의 숨겨진 스토리를 맛깔스럽게 전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북,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월평균 14일 해설활동에 월 80만원 정도의 해설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다.

과속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및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분야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 나가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